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순찰 봉사 중 ‘미아발견’ 엄마 품으로

지난 23일 저녁, 서산 호수공원 일원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지회장 가금현, 이하 지회)는 지난 23일 서산시 호수공원 일원 청소년 보호 순찰 봉사 중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미아를 발견 엄마 품에 안기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10분경 지회 회원들은 호수공원 일원 순찰 중 한 주민이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달려가 미아를 발견 안정시키고 부모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엄마를 잃고 울고 있던 아이는 호수공원 중간에 놓인 다리 입구에서 엄마와 함께하며 노는 사이 엄마가 보

이지 않자 놀이터 방향으로 엄마 찾아 킁보드를 끌고 혼자 울며 이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회 이미경 회원은 아이를 안고 달래며, 아이가 메고 있던 가방 안을 살펴 은근 H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 안전하게 엄마 품에 안기 도록 했다.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는 서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단체로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야간순찰, 학교폭력예방, 술·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신분증 확인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순진 기자



광주 수창초,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수창초등학교(교장 배창호)가 지난 8일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2일 수창초에 따르면 지난 1921년 10월3일 서방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고, 개교 100년 동안 총 4만1,85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수창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외부인 초청 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행사는 100주년 특별 기획, 축

하 공연, 기념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수창초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 청산 사업의 일환으로 교과·교목·교화를 교체했고, 100년의 역사를 디지털 자료로 담은 '디지털 역사관'을 구축한 바 있다.

기념행사에서 새로 만든 교가를 제창했고, 새로 지정된 교목(느티나무) 및 교화(철쭉)를 홍보했으며, 전·현직 교직원, 졸업생 등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도 방영했다.

학년별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역사

퀴즈 '백년 편지'를 통해 학교의 기록과 발자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함께한.지나온 100년'을 요약한 동영상도 시청했고,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굿즈 및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기념 전시의 경우 교과활동, 동아리활동(사진부), 찾아오는 체험학습(도예 체험) 등과 연계해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생 및 교직원 작품을 선보였다.

수창초 교육공동체는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학교의 역사적인 기록과 발자취를 살펴봤고, 새로운 100

년을 이끌고 세계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

배창호 교장은 "광주수창초는 100년 동안 지역 인재의 요람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뜻깊게 치러준 교직원들께 감사하다"며 "100년의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학교를 지켜온 동문 한 분 한 분이 함께한 기록과 발자취라고 생각하고, 100년을 넘어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이어갈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준 기자

세종시 연세초, 학교폭력 예방 학생들이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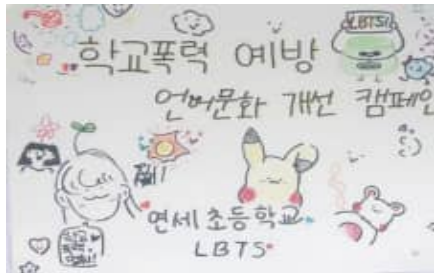
학생 자율동아리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운영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연세초등학교(교장 강혜정, 이하 연세초)는 올해 5월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자율 동아리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을 구성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연세초는 올해 세종지역을 대표하는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됐다.

6학년 학생 중심의 동아리로 구성된 연세초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은 학생자치회와 연계해 학생 주도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 ▲월간 어울림 소식지 발간 ▲최근 학교폭력 사례 모의 역할극 실시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및 마스코트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굿즈 제작 등 연말까지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공동체 의식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2021 학교폭력 예방 및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교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손팻말을 활용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쳤다.

강혜정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연세초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호 기자

진천 초평초, 충북학교문화예술페스티벌 참여

초평초등학교(교장 최연호) 라온제나 오케스트라는 지난 20일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1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번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 학생들의 성취감 향상 및 예술을 통한 총체적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초평초 오케스트라(라온제나) 연주곡은 라데츠키 행진곡/요한슈트라우스 1세, Go west(고 웨스트)/엘머 번스타인을 연주했다.

특히 이번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 코로나19로 학생들만 연주했으며,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디오 영상으로 제작해 언제든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초평초 라온제나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2012년에 창단했으며, 2013년 10월 창단 연주회 이후 현재까지 '총동문회 축하 공연, 어버이날 축하 공연, 진천 효병원'과 '진천원광 은혜의 집',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 행사, 학부모연수 행사, 경로당, 노인 요양원 위문 공연, 꽃동네학교 봉사 공연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주제의 공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제44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특별부 경쟁 부문(오케스트라) 은상을 수상했으며, 충북 학교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 매년 참가하고 있다.

/이병중 기자

당진교육지원청,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재)은 지난 19일 당진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실시했다.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학교 밖 생활지도 등을 통해 과잉된 위험 지역 개선과 아동학대 신고 접수 증가에 따른 기관별 업무 협조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당진시청 교통과,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당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당진 자율방범대연합회장, 당진 엄마순찰대연합회 등 실무자 13명이 모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살

펴보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당진 시내 청소년 우범지대 해소를 위한 실천적 협업 방안 ▲불법 택시 영업 쫓아내기 위한 청소년 안전망 확보 방안 ▲유관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아동학대 사례 공유 방안 ▲교육 안전망 확보를 위해 당진교육이 고민해야 할 의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김용재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아동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학생 발견시 신속한 보호조치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태안교육지원청, '행복동행' 마을교사 위촉

마을이 함께 모두의 아이를 키워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은 지난 18일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 공동생활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복동행' 사업 운영을 위한 마을교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복동행' 사업은 태안군문화예술총연합회, 천리포 수목원, 마을교육평생학습연구회 등 지역 주민 및 기관과 연계해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 공동생활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 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태안 동네

한 바퀴 '마실', 라온 기초학력 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희망나눔 발명교실, 행복팍팍 프로그램 등 6개의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교육소의 학생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완 교육장은 "미래교육은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으로 마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교육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민·관·학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필 기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예산군 학생회연합

2021학년도 2학기 예산군 학생회연합 출범식과 배움자리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추인)은 지난 16일 '2021학년도 2학기 예산군 학생회연합 출범식과 배움자리(워크숍)'를 예산교육지원청 1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예산군 학생회연합은 예산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생자치회 대표들로 구성·운영되며, 2학기 새로운 구성된 학생회연합 활동을 시작하고자 이날 출범식과 배움자리(워크숍)를 실시했다.

배움자리에서는 각 학교별 학생자치회 대표들이 학생자치회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PPT로 발표하고, 민주적 학생자치회 운영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예산군 학생회연합을 이끌어갈 임원진을 투표로 선출했고, 2학기 학생회연합이 시행할 사업을 발굴하고 공유했다. 또한 모둠별로 학생회연합의 역할과 위드코로나시대에 학생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토의하고 발표하며 민주적 역량을 키웠다.

이날 예산군 학생회연합이 발굴해 추진기로 한 사업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환경 홍보활동, 사제동행 '학생의 날' 운영, 통일 특강, 예산 평화나비단 지킴이 활동(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 2022학년도 학생회 간부 배움자리 등이다. 이러한 활동을 한 학기 동안 꾸준히 활동하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민주시민의 역할을 배우고 실천하게 된다.

문추인 교육장은 "1학기까지는 고등학생으로만 구성·운영했던 학생회연합을 2학기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해 운영하게 되어 기쁘다.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학생자치회와 예산군 학생회연합 활동을 통해 함께 연대하고 활동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을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최용관 기자

경기도교육청, 1인당 5만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 교재 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 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

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이다.

/김재우 기자